

D day

시간단축 & 기본기 특집자료

일반적인, 대중적인 지문 접근법으로는 10분이
왜 5분으로 줄어드는지
5분으로 줄어들어야만 하는지

학문적 reference는 이전 자료들에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갑니다.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는 댓글등으로 요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지문을 자신 나름의 풀이 방법으로, 꼭, 스톱워치로
시간 재고 풀이바랍니다.

지금 이 1지문 학습으로 독서 지문 풀이 소요 시간을
절반을 줄일 수 있다면, 그에 맞는 집중력과 시간 투자는
필수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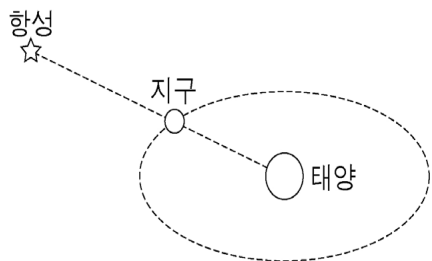
2011학년도 수능 32~36 풀이시간 :

풀이 전 이해도 : 수업 후 이해도 :

1582년 10월 4일의 다음날이 1582년 10월 15일이 되었다. 10일이 사라지면서 혼란이 예상되었으나 교황청은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던 것이다. 이로써 ㉠그레고리력이 시행된 국가에서는 이듬해 춘분인 3월 21일에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졌다. 그레고리력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무시당하고 여전히 천동설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에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필요에 의해 제정되었다.

그 전까지 유럽에서는 ㉡율리우스력이 사용되고 있었다. 카이사르가 제정한 태양력의 일종인 율리우스력은 제정 당시에 알려진 1년 길이의 평균값인 365일 6시간에 근거하여 평년은 365일, 4년마다 돌아오는 윤년은 366일로 정했다. 율리우스력의 4년은 실제보다 길었기에 절기는 조금씩 앞당겨져 16세기 후반에는 춘분이 3월 11일에 도래했다. 이것은 춘분을 지나서 첫 보름달이 뜬 후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한 교회의 전통적 규정에서 볼 때,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는 문제를 낳았다. 그것이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역법 개혁을 명령한 이유였다.

그레고리력의 기초를 놓은 인물은 율리우스였다. 그는 당시 천문학자들의 생각처럼 복잡한 천체 운동을 반영하여 역법을 고안하면 일반인들이 어려워할 것이라 보고, 율리우스력처럼 눈에 보이는 태양의 운동만을 근거로 1년의 길이를 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무엇을 1년의 길이로 볼 것인가가 문제였다. 율리우스는 반세기 전에 코페르니쿠스가 지구의 공전 주기인 항성년을 1년으로 본 것을 알고 있었다.



[A] 항성년은 위의 그림처럼 태양과 지구와 어떤 항성이 일직선에 놓였다가 다시 그렇게 될 때까지의 시간이다. 그러나 율리우스는 교회의 요구에 따라 절기에 부합하는 역법을 창출하고자 했기에 항성년을 1년의 길이로 삼을 수 없었다. 그는 춘분과 다음 춘분 사이의 시간 간격인 회귀년이 항성년보다 짧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항성년과 회귀년의 차이는 춘분 때의 지구 위치가 공전 궤도상에서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현상 때문에 생긴다.

율리우스는 이 현상의 원인에 관련된 논쟁을 접어 두고, 당시 가장 정확한 천문 데이터를 모아 놓은 알폰소 표에 제시된 회귀년 길이의 평균값을 채택하자고 했다. 그 값은 365일 5시간 49분 16초였고, 이 값을 채용하면 새 역법은 율리우스력보다 134년에 하루가 짧아지게 되어 있었다. 율리우스는 연도가 4의 배수인 해를 ㉢윤년으로 삼아 하루를 더하는 율리우스력의 방식을 받아들여, 100의 배수인 해는 평년으로, 400의

배수인 해는 다시 윤년으로 하는 규칙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것은 1만 년에 3일이 절기와 차이가 생기는 정도였다. 이리하여 그레고리력은 과학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절기에 더 잘 들어맞는 특성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새 역법은 종교적 필요를 떠나 일상생활의 감각과도 잘 맞아서 오늘날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32.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점]

- ① 두 역법 사이의 10일의 오차는 조금씩 나누어 몇 년에 걸쳐 수정되었다.
- ② 과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법 개혁안이 권력에 의해 강제되었다.
- ③ 율리우스는 교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역법 개혁안을 마련했다.
- ④ 율리우스는 천문 현상의 원인 구명에 큰 관심을 가졌다.
- ⑤ 그레고리력이 선포된 시점에는 지동설이 지배적이었다.

33. 위 글과 <보기>를 함께 읽은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만든 역법인 음력에서는 30일과 29일이 든 달을 번갈아 써서, 평년은 한 해가 열두 달로 354일이다. 그런데 이것은 지구의 공전 주기와 많이 다르므로, 윤달을 추가하여 열세 달이 한 해가 되는 윤년을 대략 19년에 일곱 번씩 두게 된다.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역법을 만들고 대략 15일 간격의 24절기를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정해 놓음으로써 계절의 변화를 쉽게 알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역법을 '태음태양력'이라고 한다.

- ① 부활절을 정할 때는 음력처럼 달의 모양을 고려했군.
- ② 동서양 모두 역법을 만들기 위해 천체의 운동을 고려했군.
- ③ 서양의 태양력에서도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고려했군.
- ④ 그레고리력의 1년은 태음태양력의 열두 달과 일치하지 않는군.
- ⑤ 윤달이 첨가된 태음태양력의 윤년은 율리우스력의 윤년보다 길겠군.

34. ㉠과 ㉡을 비교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에서 서기 1700년은 모두 윤년이다.
- ② ㉠은 ㉡보다 더 정확한 관측치를 토대로 제정되었다.
- ③ ㉠을 쓰면 ㉡을 쓸 때보다 윤년이 더 자주 돌아온다.
- ④ ㉡은 ㉠보다 절기에 더 잘 들어맞는다.
- ⑤ ㉡은 ㉠보다 나중에 제정되었지만 더 보편적으로 쓰인다.

36. ㉠의 ‘으로’와 쓰임이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이 안경테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가볍다.
- ② 그 문제는 가능하면 토론으로 해결하자.
- ③ 그가 동창회의 차기 회장으로 뽑혔다.
- ④ 사장은 간부들을 현장으로 불렀다.
- ⑤ 지난겨울에는 독감으로 고생했다.

35. [A]를 이해하기 위해 <보기>를 활용할 때 ㉠~㉣에 해당하는 것은?

<보 기>

○○시에 있는 원형 전망대 식당은 그 식당의 중심을 축으로 조금씩 회전한다. ㉠ 철수는 창밖의 폭포에 가장 가까운 창가 식탁에서 일어나 전망대의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창가를 따라 걸었다. 철수가 한 바퀴를 돌아 그 식탁으로 돌아오는 데 ㉡ 57초가 걸렸는데, 폭포에 가장 가까운 창가 위치까지 돌아오는 데에는 ㉢ 60초가 걸렸다.

- | | ㉠ | ㉡ | ㉢ |
|---|----|-----|-----|
| ① | 항성 | 항성년 | 회귀년 |
| ② | 항성 | 회귀년 | 항성년 |
| ③ | 지구 | 회귀년 | 회귀년 |
| ④ | 지구 | 항성년 | 회귀년 |
| ⑤ | 지구 | 회귀년 | 항성년 |

위의 지문은 일반적인, 대중적인 지문 접근법으로는 10분도 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지겠습니다.

Q. 여러분은 공부를 왜 합니까?
지금 국어 문제 왜 풀고 있습니까?

A. 정답 찾기 위해. 목표 등급 받기 위해. 대학가기 위해.

위의 답은, 틀린 답 같지 않지만, 사실은 틀렸습니다.
평가원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1. 대학수학능력시험
=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 선발하는 시험

#2. 국어영역
= 국어교육학을 학문적 Base로 하여, 4차 산업혁명에서 요구되는 정보처리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

우리가 고득점하고 싶다고 고득점,
대학가고 싶다고 대학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출제자 의도에 맞게 사고한 결과가 정답이고,
고득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최소한 다음 같은 자세는 가져야합니다.

#1. 나는 수능 국어 시험에 대해 잘 모른다
#2. 지금 익숙한 접근법으로는 익숙한 등급만 나온다
#3.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정보처리의 사고 수준으로 단기간에 집중, 사고 차원을 바꿔 놓겠다.

쉽게 말해서,
첫 단어부터 끝 단어 까지 모두 읽고, 이해하고, 기억해서,
모든 선지 하나 하나 근거 찾아 판단하겠다.
= 틀린 풀이입니다.

이미 6월, 그리고 9월에서 겪겠지만, 그래서
#1. 절대로 80분 안에 완결된 정보처리 불가능하고
#2. 애초에, 수능 지문 자체도 완결된 정보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1. 구조 처리, 가치 판단, 주제 파악

이는 철저하게 수능 시험범위인 국가교육과정 기반하였고,
국가교육과정의 그 실현인 독서 교과서에서 명백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검정색 : 지문 내용, 일치로 확인 가능한 정보

파란색 : 거시적 정보 구조

주황색 : 미시적 정보 구조

녹색 : 가장 가치 높은 정보

노란색 : 가치 높은 정보

보라색 : 가치가 거의 없는 정보.

단, 기존 언어영역 접근 방법에서는 최대한 끌고 와서

시간, 실수, 정답률, 피로도, 모든 부분에서 손해를 일으키는 정보 (이를 이해 못하시면 그 역시도 존중합니다. 수능에서는 틀렸지만, 인생에서는 1등급, 백분위 100만 옳은 것은 아니니까.)

1 주제 setting

구조 : 어그로

숨겨진 주제 : 종교, 정치(=부활절)

최상위 정보 : ㉠그레고리력

차상위 정보 :

P 예상 되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P 더 큰 문제 해결을 위해,

S 그레고리력 도입.

2 T.S.H.P (Topic Setting Hot Place)

구조 : 문제제기-해결책 제시

최상위 정보 : ㉡울리우스력의 원리와 문제

최하위 정보 : 율리우스력의 윤년 계산 방법

(여기에 밑줄 치고, 정리해서 선지 연결? 네. 딱

중~고 잼민이들 수준. 수능 백분위 100 확률 거의 없음)

제가 이렇게 까지 이야기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1단락에 제시된 날짜가... 몇 년 몇 월이었죠?
 저는 기억합니다. 년도는 기억 못해도
 춘분은 기억해서, 3월 21일이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 돌아가서 확인해보니 거의 내 머릿속에 남아 있는
 정보가 없죠?

당연합니다.
 인간은 많아야 '8단위' 내외만 기억 가능하며, 대부분의
 정보는 20초면 휘발되는 단기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읽어도 기억이 안 나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사고
 매커니즘입니다.

잉?
 기억이 안 나는게 당연하다고?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어? 그리고 나는 기억하는데?

학습이론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 사회 구성주의
 최소한 이 정도의 교육심리 기반 조차 없다면,
 최소한 수능 국어에 대해 알가알부하는 것은
 제가 돌팔이 의사 행세를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좋은 형 누나 언니 오빠가 될 수는 있어도
 가르칠려면 전문성이 있어야죠.

평가원은 말합니다.
 독서의 본질 : 독자의 배경지식과 글의 내용간의 대화적
 활동.

즉, 독자의 기존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엮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평가원의 의도
 그리고, 17~22 최근 평가원 기출 흐름을 바탕으로
 정보처리 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1 주제 setting

구조 : 어그로
 숨겨진 주제 : 종교, 정치(=부활절)
 최상위 정보 : ㉠그레고리력
 차상위 정보 :
 P 예상 되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P 더 큰 문제 해결을 위해,
 S 그레고리력 도입.

2 T.S.H.P (Topic Setting Hot Place)

구조 : 문제제기-해결책 제시
 숨겨진 주제 : 종교, 정치(=부활절)
 최상위 정보 : ㉡율리우스력의 원리와 문제

평가원 의도 사고 흐름

아! 기존 율리우스력이 중세에 중요했던 종교, 즉,
 부활절을 정확히 지키기 어려운 원리라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그레고리력이 도입되었겠군!

3 문제와 해법고찰

구조 : P-S(problem - solution)
 최상위 정보 : 해법은 2가지.
 ① 복잡한 천체 운동 그대로 반영
 ⇨ 정확 but 일반인 이해X
 ② 눈에 보이는 태양 운동 중심 반영
 ⇨ 덜정확 but 일반인 이해O

4 시각 자료 텍스트 해석, 과학 원리

구조 : 그림 이해, 과학 원리
 최상위 정보 : 항성년과 회귀년
 ① 복잡한 천체 운동 그대로 반영 = 항성년
 ② 눈에 보이는 태양 운동 (절기에 맞는) = 회귀년
 항성년 > 회귀년

5 회귀년 원리 설명

구조 : 수치, 처리
 최상위 정보 : 없음항성년과 회귀년
 최하위 정보 : 회귀년의 윤년 계산 방법(가치 낮은 정보)

정리합니다.

보라색 제외한 검정색 위주로 이해 처리해주세요.

1

P-S ㉠그레고리력 => 부활절 정확히 지키기 위함

2

P㉡율리우스력 => 부활절 부정확

세부내용.

율리우스력 윤년 원리 : 정보가치 낮아. 안 중요

정답 선지에 큰 영향 없음

3

P 기존 역법으로는 부활절 못 지키

(부활절 못지킨다? = 중세 정치, 권력 근간인 종교가 틀렸다 = 기득권 체제가 박살날 수 있음. 해결해야함)

S 당시 기준 최첨단 과학기술 보다는 < 절기 중심

(부활절은, 춘분 후, 첫 보름달 후, 첫 일요일. 즉,

춘분=태양 절기 지켜야함)

54

S 회귀년

(절기에 맞춤 = 역법 개혁 이유 = 부활절 지켜)

1 복잡한 천체 운동 그대로 반영 = 항성년

2 눈에 보이는 태양 운동 (절기에 맞는) = 회귀년

항성년 > 회귀년

5

회귀년 윤년 원리 : 정보가치 낮아. 안 중요

정답 선지에 큰 영향 없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보량은 간단, 압축됩니다.

길어야 8~10개의 단어, 정보.

제가 이렇게 까지 이야기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체 329단어 => 10단어로 압축

즉,

#1. 329 단어를 전부 기억하는 인간은 없으며,

#2. 첫 단어 정보부터, 끝 단어 정보까지 모두 처리하는 능력은 이 시대에 필요가 없으며, (AI가 압도적으로 함)

#3. 정보 구조 처리가 가능한 것이 훨씬 뛰어난 능력이고

#4. 정보 가치 판단이 훨씬 더 뛰어나고 필요한 능력이며

#5. AI와 차별화되는, 인간에게 요구 되는 능력임.

그에 따라 주제에 집중해, 결국 가치 높은 정보에 집중해, 확률적으로 유의미한 정보 처리로 귀결시키는 능력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특히, 8~10단위 수준, 누구나 처리 가능, 기억 가능한 정보. 바로 답 고릅니다.

32.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점]

- ① 두 역법 사이의 10일의 오차는 조금씩 나누어 몇 년에 걸쳐 수정되었다.
- ② 과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법 개혁안이 권력에 의해 강제되었다.
- ③ 율리우스는 교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역법 개혁안을 마련했다.
- ④ 율리우스는 천문 현상의 원인 구명에 큰 관심을 가졌다.
- ⑤ 그레고리력이 선포된 시점에는 지동설이 지배적이었다.

첫 문항 유형

(by. 평가원 공문서) = 주제+구조 처리

- ③ 율리우스는 교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역법 개혁안을 마련했다.

정답이유

글의 주제는 율리우스력에서 갑자기 그레고리력으로 바뀌게 된 배경과, 그 전개입니다.

부활절(종교)=춘분(절기)를 지켜야 함

=> 그레고리력(회귀년 기준) 도입으로 해결

정답.

오답이유

① 두 역법 사이의 10일의 오차는 조금씩 나누어 몇 년에 걸쳐 수정되었다.

문항설계 : 구조 처리 - 1단락 도입 구조

1단락 도입부의 어그로입니다.
한 번에 10일을 바꿨다 = 예상되는 문제
=> 그래도 더 큰 문제 해결 위해 도입했다.

오답이유

② 과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법 개혁안이 권력에 의해 강제되었다.

문항설계 : P-S 구조 처리

교회, 중세의 권력의 요구로 역법 개혁
그러나, 과학적 근거, 회귀년과, 항성년 비교 및 통계 활용

오답이유

④ 율리우스는 천문 현상의 원인 구명에 큰 관심을 가졌다.

문항설계 : 내용일치의 경우 오답 위험 높임

역시, 주제 처리

결국 주제는 교회, 중세의 권력의 요구로 역법 개혁
따라서, 천문현상보다 중요한 것이 부활절 지키는 것
즉, 절기에 더 부합한 회귀년 선택.
그렇다고 과학을 완전 배제한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과학적으로만 한 것도 아니고

이때 도움이 되는 사고 방법 '베이즈주의'

정답 스펙트럼

완전 과학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완전 종교

율리우스는 위의 한 50~60? 정도에 있을 것 같음
반면, 완전 골수 과학 주장은 0
완전 종교 주장은 100

그러면, 4번선지, 큰 관심 = 아마도 10~20아닐까?

즉, 문제에서, 100% 옳은 것, 그른 것이 아니라
가장(1~99%)옳은 것, 그른 것을 묻는 이유.

오답이유

⑤ 그레고리력이 선포된 시점에는 지동설이 지배적이었다.

문항설계 : 숨겨진 주제

천동설 : 중세 - 종교 경전 base
지동설 : 근대 - 과학 기술 base
당연히 종교 힘이 좀 더 강했으니...역법 개혁 필요성 제기
그 결과, 회귀년 기준으로 갖겠지!

그럼 여기서 질문

내용 일치 발체독으로 풀면 안 되냐구요?
됩니다.

내년 수능 치고 싶으면

혼자 8시 40분 부터 11시 40분 까지 수능 국어만 3시간
풀고 싶으면

그레고리력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무시당하고 여전히 천동설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에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필요에 의해 제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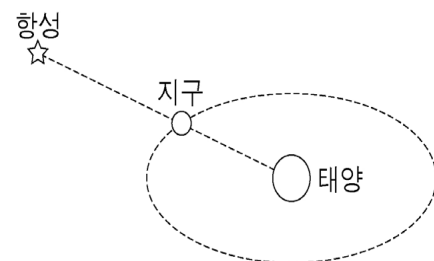
⑤ 그레고리력이 선포된 시점에는 지동설이 지배적이었다.

정답 근거 찾아서 밑줄 쳐보겠습니다.

1582년 10월 4일의 다음날이 1582년 10월 15일이 되었다. 10일이 사라지면서 혼란이 예상되었으나 교황청은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던 것이다.

① 두 역법 사이의 10일의 오차는 조금씩 나누어 몇 년에 걸쳐 수정되었다.

그레고리력의 기초를 놓은 인물은 율리우스였다. 그는 당시 천문학자들의 생각처럼 복잡한 천체 운동을 반영하여 역법을 고안하면 일반인들이 어려워할 것이라 보고, 율리우스력처럼 눈에 보이는 태양의 운동만을 근거로 1년의 길이를 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무엇을 1년의 길이로 볼 것인가가 문제였다. 율리우스는 반세기 전에 코페르니쿠스가 지구의 공전 주기인 항성년을 1년으로 본 것을 알고 있었다.



항성년은 위의 그림처럼 태양과 지구와 어떤 항성이 일직선에 놓였다가 다시 그렇게 될 때까지의 시간이다.

그러나 릴리우스는 교회의 요구에 따라 절기에 부합하는 역법을 창출하고자 했기에 항성년을 1년의 길이로 삼을 수 없었다. 그는 춘분과 다음 춘분 사이의 시간 간격인 회귀년이 항성년보다 짧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항성년과 회귀년의 차이는 춘분 때의 지구 위치가 공전 궤도상에서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현상 때문에 생긴다.

릴리우스는 이 현상의 원인에 관련된 논쟁을 접어 두고, 당시 가장 정확한 천문 데이터를 모아 놓은 알폰소 표에 제시된 회귀년 길이의 평균값을 채택하자고 했다.

④ 릴리우스는 천문 현상의 원인 구명에 큰 관심을 가졌다.

이리하여 그레고리력은 과학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절기에 더 잘 들어맞는 특성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새 역법은 종교적 필요를 떠나 일상생활의 감각과도 잘 맞아서 오늘날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② 과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법 개혁안이 권력에 의해 강제되었다.

잠시만요...

근데요... 이 근거들 언제 다 찾을 수 있죠?

아니... 무엇보다도 눈으로 푸는 문제???

고3 시험이 왜 시력 문제인데요???

눈으로만 푸는 문제를 고3한테 왜 냅니까?

고1 잼민이 시절 풀던 문제 접근을 하는 학생이 뛰어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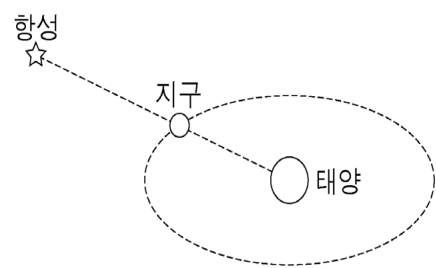
문제 선지들의 OX 판단 근거에 밑줄을 모두 치면...

1582년 10월 4일의 다음날이 1582년 10월 15일이 되었다. 10일이 사라지면서 **32번 1번 선지(근거)** 혼란이 예상되었으나 교황청은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던 것이다. **32번 2번 선지(근거)** 이로써 ㉠ 그레고리력이 시행된 국가에서는 이듬해 춘분인 3월 21일에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졌다. 그레고리력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무시당하고 여전히 천동설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에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필요에 의해 제정되었다. **32번 5번 선지(근거)**

그 전까지 유럽에서는 ㉡ 율리우스력이 사용되고 있었다. **34번 5번 선지(근거)** 카이사르가 제정한 태양력의 일종인 율리우스력은 제정 당시에 알려진 1년 길이의 평균값인 365일 6시간에 근거하여 평년은 365일, 4년마다 돌아오는 윤년은 366일로 정했다. **33번 5번 선지(근거)** 율리우스력의 4년은 실제보다 길었기에 절기는 조금씩 앞당겨져 16세기 후반에는 춘분이 3월 11일에 도래했다. 이것은 춘분을 지나서 첫 보름달이 뜬 후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한 교회의 전통적 규

정에서 볼 때,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는 문제를 낳았다. **33번 1번 선지(근거)** 그것이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역법 개혁을 명령한 이유였다. **32번 2번 선지(근거)**

그레고리력의 기초를 놓은 인물은 릴리우스였다. **32번 3번 선지(근거)** 그는 당시 천문학자들의 생각처럼 복잡한 천체 운동을 반영하여 역법을 고안하면 일반인들이 어려워할 것이라 보고, 율리우스력처럼 눈에 보이는 태양의 운동만을 근거로 1년의 길이를 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무엇을 1년의 길이로 볼 것인가가 문제였다. 릴리우스는 반세기 전에 코페르니쿠스가 지구의 공전 주기인 항성년을 1년으로 본 것을 알고 있었다. **33번 2번 선지(근거)**



[A] 항성년은 위의 그림처럼 태양과 지구와 어떤 항성이 일직선에 놓였다가 다시 그렇게 될 때까지의 시간이다. 그러나 릴리우스는 교회의 요구에 따라 절기에 부합하는 역법을 창출하고자 했기에 항성년을 1년의 길이로 삼을 수 없었다. 그는 춘분과 다음 춘분 사이의 시간 간격인 회귀년이 항성년보다 짧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항성년과 회귀년의 차이는 춘분 때의 지구 위치가 공전 궤도상에서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현상 때문에 생긴다.

33번 2번 선지(근거)

릴리우스는 이 현상의 원인에 관련된 논쟁을 접어 두고, **32번 2,4번 선지(근거)** 당시 가장 정확한 천문 데이터를 모아 놓은 알폰소 표에 제시된 회귀년 길이의 평균값을 채택하자고 했다. 그 값은 365일 5시간 49분 16초였고, 이 값을 채용하면 새 역법은 율리우스력보다 134년에 하루가 짧아지게 되어 있었다. 릴리우스는 연도가 4의 배수인 해를 ㉢ 윤년으로 삼아 하루를 더하는 율리우스력의 방식을 받아들여, 100의 배수인 해는 평년으로, 400의 배수인 해는 다시 윤년으로 하는 규칙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33번 4번 선지(근거)** 이것은 1만 년에 3일이 절기와 차이가 생기는 정도였다. 이리하여 그레고리력은 과학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절기에 더 잘 들어맞는 특성을 갖게 되었다. **32번 3번 선지(근거)** 그 결과 새 역법은 종교적 필요를 떠나 일상생활의 감각과도 잘 맞아서 오늘날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34번 5번 선지(근거)**

심지어 35번 근거는 유추라, 지문에서 100% 판단 근거도 찾을 수 없어요. 이쯤 되면 다들 이해하셨어야 합니다.

이제 쓸데 없는 접근법 더 설명 안 합니다. 빠르게 갑니다.

두번째 문항 유형

(by. 평가원 공문서) = 주제+구조 처리 바탕,

지문에 원리가 있다면,

유형1. 지문 원리 바탕 보기 선지 사례 적용 또는,

유형2. 비교 대조 지문

33. 위 글과 <보기>를 함께 읽은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만든 역법인 음력에서는 30일과 29일이 든 달을 번갈아 써서, 평년은 한 해가 열두 달로 354일이다. 그런데 이것은 지구의 공전 주기와 많이 다르므로, 윤달을 추가하여 열세 달이 한 해가 되는 윤년을 대략 19년에 일곱 번씩 두게 된다.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역법을 만들고 대략 15일 간격의 24절기를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정해 놓음으로써 계절의 변화를 쉽게 알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역법을 '태음태양력'이라고 한다.

정답사고흐름 : 정보 후 처리 - 표 처리

	서양	동양	
역법	그레고리력	태음태양력	
책임이 수준 배경지식	양력=태양 기준, 음력= 달 기준 서양은 양력, 동양은 음력 (ex 양력 설 1월 1일. 음력 설1~2월 중)		
구분	양력 = 태양 주기 기준	음력 = 달의모양주기 양력 = 태양절기(주기)고려	

① 부활절을 정할 때는 음력처럼 달의 모양을 고려했군.

맞는이유 : 주제+구조 (공통점)

부활절 : 춘분 후, 첫 보름달 후, 첫 일요일
보름달 = 달의 모양

음력 : '보름달' 돌아오는 주기
보름달 이라는 '달의 모양' 주기

맞음.

하지만, 내용일치가 아니라, '처럼'으로 처리 된, 비교 대조로 표처리 의도로 보는 것이 바른 접근법임.

② 동서양 모두 역법을 만들기 위해 천체의 운동을 고려했군.

맞는이유 : 주제+구조 (공통점)

서양 : 회귀년 - 태양 절기 고려 => 태양 ∈ 천체

동양 : 보름달 주기, 절기 고려 => 달, 태양 ∈ 천체

③ 서양의 태양력에서도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고려했군.

틀렸음! 이게 정답!

??? 맞는데? 맞는이유 : 내용일치

내용일치하면 맞잖아?

부활절 : 춘분 후, 첫 보름달 후, 첫 일요일

그러면, 보름달 돌아오는 주기 고려한 거 아냐?

놉!

춘분 - 매년 돌아오는 절기 = 주기

춘분 이후 첫 보름달

= 보름달 돌아오는 주기가 아니라,

1일 뒤가 될 수도, 10일 뒤가 될 수도 있음.

즉, 주기가 아니라

보름달이라는 달의 '모양'이 중요!

야! 1번 선지는?! 그거도 달의 모양? 주기?

① 부활절을 정할 때는 음력처럼 달의 모양을 고려했군.

아! 달의 모양이네? 주기가 아니라?

그래서 정답은 3번 선지

헐... 모양 vs 주기 한 단어 찾아야 하네.

엄청 꼼꼼하게 봐야하는구나?!

이런 사고 흐름은

= 전형적인 3등급 수준

(물론 편차에 따라서 1등급도 가능. 근데 그것도 최소 5~10년 전 수준)

평가원 의도 정답사고흐름으로 교정하세요!

전체 정보는 329단어

그 중에, 모양, 주기라는 단어 찾는 것은 매우 어려움

하지만, 주제 구조 좁히면?

달의 주기(동양) vs 달의 모양(동양, 서양 모두)

329단어에서 1~2단어 찾기가 아니라
10단어에서 1~2단어 찾기

즉, 현실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현실적으로 80분 시간 안에 가능한 접근법임.

④ 그레고리력의 1년은 태음태양력의 열두 달과 일치하지 않는군.

당연하지.

주제+구조

그레고리력 : 양력

동양 : 태음+태양력

⑤ 윤달이 첨가된 태음태양력의 윤년은 율리우스력의 윤년보다
길겠군.

당연하지.

이건 숫자 발췌독.

단, 이미 정답이 3번으로 특정.

3번에 더 많은 시간을 써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

34. ㉠과 ㉡을 비교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에서 서기 1700년은 모두 윤년이다.
- ② ㉠은 ㉡보다 더 정확한 관측치를 토대로 제정되었다.
- ③ ㉠을 쓰면 ㉡을 쓸 때보다 윤년이 더 자주 돌아온다.
- ④ ㉡은 ㉠보다 절기에 더 잘 들어맞는다.
- ⑤ ㉡은 ㉠보다 나중에 제정되었지만 더 보편적으로 쓰인다.

문항 설계

내용일치 아님

(by. 평가원 공문서) = 주제+구조 처리 바탕. 후처리.

즉, 비교 대조 지문.

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제

따라서,

주제는?

㉡율리우스력의 문제 P

㉠그레고리력이 해결 S

문제 해결 그 과정에,

중세-근대로 넘어가는 시절의 가치관/과학기술 반영

즉, 근대 과학 기술도 일부 반영

따라서, 정답 2번선지 끝~!

② ㉠은 ㉡보다 더 정확한 관측치를 토대로 제정되었다.

문항설계

추론적 사고 - 유비추론 유형 + 그리기 필수

35. [A]를 이해하기 위해 <보기>를 활용할 때 ㉠~㉣에 해당하는 것은?

<보 기>

○○시에 있는 원형 전망대 식당은 그 식당의 중심을 축으로 조금씩 회전한다. ㉠철수는 창밖의 폭포에 가장 가까운 창가 식탁에서 일어나 전망대의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창가를 따라 걸었다. 철수가 한 바퀴를 돌아 그 식탁으로 돌아오는 데 ㉡57초가 걸렸는데, 폭포에 가장 가까운 창가 위치까지 돌아오는 데에는 ㉢60초가 걸렸다.

	㉠	㉡	㉢
①	항성	항성년	회귀년
②	항성	회귀년	항성년
③	지구	회귀년	회귀년
④	지구	항성년	회귀년
⑤	지구	회귀년	항성년

지문의 주제. 두 가지 주기

회귀년(더 짧음) < 항성년

㉡57초가 걸렸는데, 폭포에 가장 가까운 창가 위치까지 돌아오는 데에는 ㉢60초가 걸렸다.

회귀년 = 57초, 항성년 = 60초

이것이 '유추'라는 사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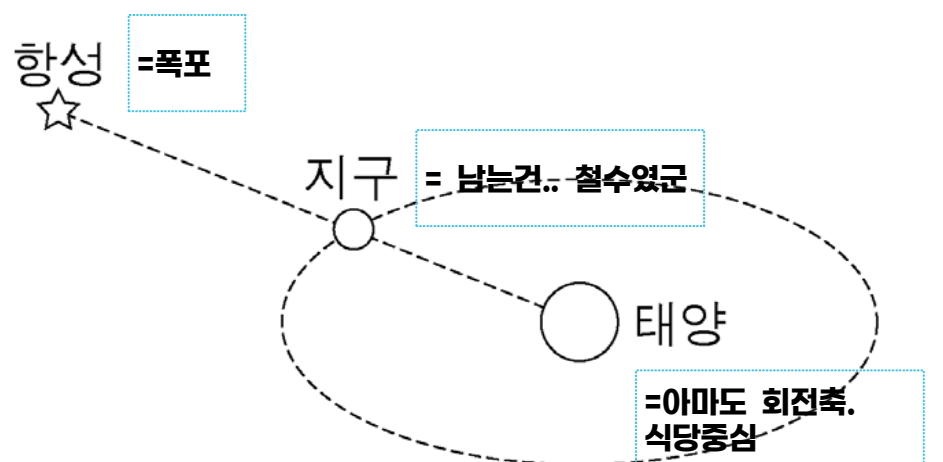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 기존 자료/수업의 '유추' 참조

그렇다면... 60초 = 항성년

60초 = 폭포 기준 = 폭포가 항성이겠군

그럼... 철수는 최소한 항성은 아니네.

그려보면?



나머지 자료와 연재 자료는
제 게시물을 보시면 200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기출 문제 풀어보시고 부족한 지문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어그로가 돈이 되는 세상이지만
어그로 보다는 더 내실이 충실한 자료로,
그 누구보다 도움 되는 수업과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학생이 있어야 강사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